

자유방임은 오해, 경제에 걸맞는 법·사상 필요

‘정의의 법’ 범하지 않는 한도서 자유롭게 이익 추구해야

18세기 말 근대 유럽 사상의 토양 위에 탄생한 아담 스미스(1723~1790)의 경제학은, 그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21세기 초에 이르러 마침내 동양사상을 받아들여 그것과의 융합을 도모하지 않으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실은 스미스의 <국부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당시의 중국이나 일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스미스와 동양과의 기이한 인연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스미스는 장차 자신의 경제학과 동양사상과의 융합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어렵듯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농촌과 전원생활에 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시골의 아름다움, 전원생활의 즐거움, 그것이 보증해주는 마음의 평온함...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땅을 경작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운명지어진 것인 만큼 인간 생활사의 온갖 관계 속에서도 이런 원시적인 직업에 대해 애착하는 마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처럼, 전원이 갖는 비시장적 가치는 녹색 성장시대를 맞아 점점 더 중요해져 갈 것이다.

그런데, <국부론>의 핵심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사적 이익의 추구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주장한 점이다. 동시에 스미스는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스미스는 이기심과 자유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스미스 즉,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주장자

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오해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스미스는 그의 저작 중 어디에도 ‘자유방임(laissez-faire)’을 중점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는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자유방임이라는 말은 아담 스미스의 저작 중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논술하고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미스는 무한정 제멋대로 사는 ‘이기심’ 즉,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권장하고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리 추구를 행함은 정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버블경제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나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같이 파렴치한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경쟁내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정의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의 경제행위를 권장한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경제인’은 ‘도덕심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경제와 도덕(morale)과는 스미스 경제학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라 조화(調和)이다. 그의 <국부론>은 그러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요컨대 스미스 경제사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체(또는 공화국)가 평화롭게 변형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유지 보전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유지 보전하는 것으로서 법이 있으며, 법의 파수꾼으로서 재판관이 있다. 법의 해



그림 · 김필현

석과 적용은 정말로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엄격성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한 인권을 지키는 덕(德)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면, ‘경제 행위’라는 것은 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일까? 스미스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둘째로, 경제의 세계에는 ‘절제의 미덕’이라는 덕성이 존재한다. 낭비는 덕이 아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비생산적인 것에 노력을 증가하는 것도 덕은 아니다. 때문에 경제의 세계에는 합리적인 계산과, 배려와 신중한 예측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로, 이기심은 정의의 한계 내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안되며, 경제인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국가사회의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세계’라는 것은 무법자의 세계도 아니려니와 뒷어놓고 무조건 자유방임의 세계도 아니다.

이상의 정의의 법 혹은 도덕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사적 이익의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순조롭게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고, 국민인 GDP를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행복도 증진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믿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의 틀에서 모순이 아닌 조화로운 경제사회를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서 있었던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는 조화가 아니라 커다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화, 공업화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의 증대로 결부되어 나가야 하지만, 마침내 지구 규모의 환경파괴를 진전해간다. 그렇다면, 지구환경시대의 ‘정의의

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공정·절제의 견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인으로서의 도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지구환경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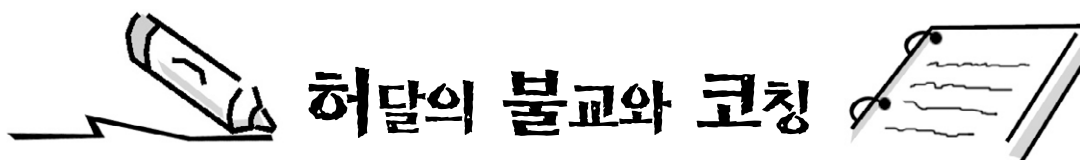
스미스가 생각했던 당시 산업혁명시대의 문제는 물론 오늘날의 지구환경시대의 절박한 상황과는 다르다. 따라서 스미스는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스미스의 책임은 아니다. 18세기의 스미스의 시대에는 시대정신이 거기까지 추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설파한 ‘정의의 법’이나 도덕이 지금도 역시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탐욕의 버블경제하에서 횡행하는 배금주의가 모순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런 느낌이 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소비자 권리는 바로 이 정의의 법이나 도덕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스미스의 정의의 법이나 도덕으로부터 곧바로 지구환경시대에 걸맞는 사상원리를 추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관철시켜 온 그 과보로 지구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18세기 산업혁명의 시구 가치관과 스미스의 경제학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연동대 경제학과 교수

17 코칭과 진정성



미래산업 주식회사의 정문술 사장이 아직 현직일 때 그가 제 주도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미래산업이 신상품 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실은 스무 가지 개발 제품 중에 열일곱 개가 실패하고 세 개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 개발을 하느라고 연구실에 야전전대 들여놓고 연구원들과 동고동락 해가면서 밤낮 없이 골똘했었는데, 그 중 한 제품 개발은 너무 어려워 연구원들이 결국 손을 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사장님, 아무래도 이젠 포기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최후 통첩을 받았으나 그래도 실망한 기색은 보일 수 없어서 소주 몇 병 사서 종 파티 해 주고, 오랜만에 다리나 뺨고 잡 한번 자보자고 집으로 뭉수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불현듯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파자마 위에 집과 걸치고 연구실로 달려 가서, 술 취해 잡자던 연구원들 두들겨 깨워서 품에 본 아이디어 적용해 보니, 아, 바로 그게 해결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화 같은 또 하나의 해피 엔딩이 이루어졌다고, 집중과 헌신이 창의력과 연결되는 놀라운 파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기억이 새롭다.

이 회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문술 사장은 아래와 같은 두 가

지 결심을 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공표했다고 한다. “첫째, 이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것이다. 내 가족은 이 회사의 경영에 절대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신이 퇴역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지분을 충분히 300억 원을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증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그것이었다.

다른 많은 기업인들과는 달리 정문술 사장은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켰으며, 그 가족들에게는 공장어컹 사무실 방문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철함이 향간에 회자되는 것을 들었다. 이 진정성이 아마도 오늘의 미래산업을 온 구성원이 몸 바쳐 일하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동력이었을 것이다.

<고등어를 금하노라>라는 책을 출간한 50대 건축가 임혜지 씨는 독일 남자와 결혼해 독일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책이 요즘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누구나 ‘삶의 주인이 되라’는 주도적 삶의 자세를 강조한 글이다. 재미도 없는 돈 때문에 더 일하지는 말라고 남편의 승진을 말리는 아내, 자녀에게 공부도 연애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엄마,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의 품위는 내가 선택한다는 그녀의 현명한 둔감력(鈍感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내게 멘토 코칭을 받고 있는 어떤 기업의 임원이 하루는 멘토 코칭의 한 과정으로 자신이 부하직원을 코칭 한 녹취파일을 하나 가져왔다. 검토하여 잘 된 곳, 잘못 된 곳을 찾아 피드백 해달라는 것이었다. 약 30분 간의 코칭 장면을 녹취한 것이었는데, 한 마디로 곱할기 코칭이어서 코칭의 주제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고객과 코치 모두 몰입도도 낮아서 실망이 컸다. 그래서 즉석에서 내가 주제 하나를 제시하고 내 문제를 코칭 하도록 시연 시켜보았더니, 아직 숙련이 부족한 미흡함은 있었으나 녹취된 코칭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훌륭한 코칭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객과 함께 다시 잔잔히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주제의 진정성 결여가 먼저 지적되었다. 부하 직원이 억지 총환으로 만들어 온 절실하지도 않은 주제를 과제 삼아, ‘연습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교과서의 코칭 모델을 적용하여 코칭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부하 직원에게 해보도록 권고했다.

“자네가 가져온 그 주제는 스스로 얼마나 간절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과제인가?” 또는, “자네 주제의 절실한 정도를 1에서 10까지의 스케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임원은 크게 고개를 끄덕여, “아하!” 하는 깨달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자신이 코칭에 임하는 자세의 진정성도 함께 반성했을 것이다. 이로써 다음 코칭 세션에서는 보다 더 자신의 진정성에 입각해 고객의 본질과 연결된 코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깨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스스로 그러함’이 진정성의 표출일 뿐이다. 코치는 고객과 함께 이 진정성의 세계에서 돌아 나 하나가 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사람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암축 참숯부착)

- ❖ 대한민국 명장 가공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저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가 격 :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6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